

## 아베노믹스 4년차, 新성장전략 등 각의결정

-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정책의 기본방침인 「골태 방침 2016」, 새로운 성장전략인 「일본 재흥전략 2016」, 1억 인구 유지를 위한 「1억 총활약 플랜」 등을 각의에서 결정
- 명목GDP를 600조 엔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이나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의 핵심 과제에 주력할 방침

### □ 새로운 3개의 화살과 1억 총활약 사회

- 아베 총리는 향후 3년을 「아베노믹스 2단계」로 명명하고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선언
  - 2단계 중요 과제로 (1)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제약의 극복, (2)지역경제 활성화·순환의 전국으로 확대
  - 일본의 강점인 1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유지하면서 일본경제를 재성장 시키기 위해 생산성 혁명과 민간 투자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 아베 정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질병 있거나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3개의 화살을 제안
  - 화살의 목표는 (1)전후 최대의 명목GDP 600조 엔, (2)희망출산률 1.8, (3)간병을 위해 이직해야 하는 문제 해소 등
  - 과거의 3개 화살에 비해 성장전략의 내용이 경제·금융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와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

### < 아베노믹스 화살 비교 >



## ① 골태방침2016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통칭 골태방침(骨太方針))」은 일본정부가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 아베 정권은 ‘14년에는 ‘법인세 인하’ 등, ‘15년에는 ‘소비증세 연장을 고려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
  - 골태방침에 예산편성의 방향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 억제를 추진하는 재무성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각 부처 간에 대립
- 아베 정권에서는 골태방침의 내용이 성장전략이나 다른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골태방침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발언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

###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6 >

#### 현재 일본경제의 과제와 방향

1.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2. 「성과와 분배의 선순환」 목표
3. 명목GDP 600조 엔 경제로 가는 기본 방향
4.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 성과와 분배의 선순환 실현

1.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일하는 희망, 배우는 희망의 실현
2. 성장전략의 가속
3. 개인소비의 환기
4. 성과와 분배를 연결하는 경제재정시스템 구축
5. 안심·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 확보

####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추진

1.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착실한 추진
2. 선진·우량 사례의 전개 추진,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 '가시화'의 철저·확대
3. wise spending 시스템 강화
4. 실효적인 PDCA cycle 구축
5. 각 주요 분야 개혁의 추진

#### 경제재정 운영과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방향

1. 경제현황 및 향후 동향과 경제재정 운영방향
2.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② 일본재흥전략2016(성장전략)

- ‘16년 성장전략의 핵심은 명목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로봇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의 향상에 중점을 둔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 자동운전이나 IT로 생산을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소형 무인비행기(드론) 등 최첨기술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
- 중소기업의 현장 혁명을 위해 소형 범용로봇의 도입비용을 20% 감소, 또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20년까지 배증시킬 예정

-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영주권 신청 조건을 5년간 체류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
- 국가전략특구의 규제를 완화시켜 외국인 유입을 확대,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기업의 對日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

### < 일본재흥전략2016(新성장전략) >

명목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민관 전략프로젝트10」

- ①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 (IoT·빅데이터·AI·로봇) 【부가가치 창출 : 30조 엔(2020년)】
- ②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 【시장규모 : 16조 엔(2011) ⇒ 26조 엔(2020)】
- ③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에너지 관련 투자 : 18조 엔(2014년도) ⇒ 28조 엔(2030년도)】
- ④ 스포츠의 성장산업화 【시장규모 : 5.5조 엔(2015) ⇒ 15조 엔(2025)】
- ⑤ 중고주택 유통·리폼시장의 활성화 【시장규모 : 11조 엔(2013) ⇒ 20조 엔(2025)】
-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 343조 엔(2014) ⇒ 410조 엔(2020)】
- ⑦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 ⑧ 농업개혁·수출 촉진 【6차 산업시장 : 4.7조 엔(2013년도) ⇒ 10조 엔(2020년도)】
- ⑨ 관광입국 【외국인여행소비액 : 3.5조 엔(2015) ⇒ 8조 엔(2020), 15조 엔(2030)】
- ⑩ 국민 연계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정책 등

생산성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1. 새로운 규제·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
2. 국가전략특구의 활용(구조개혁의 돌파구)
3. 기업지배구조 강화
4. PPP/PFI 등에 의한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확대  
【10년간(2013~2022)에 PPP/PFI 사업규모를 12조 엔으로 확대(재검토 중)】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 넘치는 인재 창출

1.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
2. 경제성장을 개척하는 인재의 육성·확보
3. 성장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 여성의 활약 등 다양한 노동자의 참가

해외 성장시장 흡수

1. TPP를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13.8조 엔(2013년도) ⇒ 25.2조 엔(2020년도)】
2.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 【약 16조 엔(2013) ⇒ 약 30조 엔(2020)】
3. 직접투자 유치 강화 【23.3조 엔(2014) ⇒ 35조 엔(2020)】
4. 경제연계 협상, 투자협정·조세조약의 체결·개정 추진

개혁 모멘텀의 활용

- 「개혁2020」 프로젝트 추진

- 규제개혁에 인재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완화를 제시
- 보육사 자격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인가보육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낮추면 육아 경험이 있는 어머니 등 국가 자격이 없는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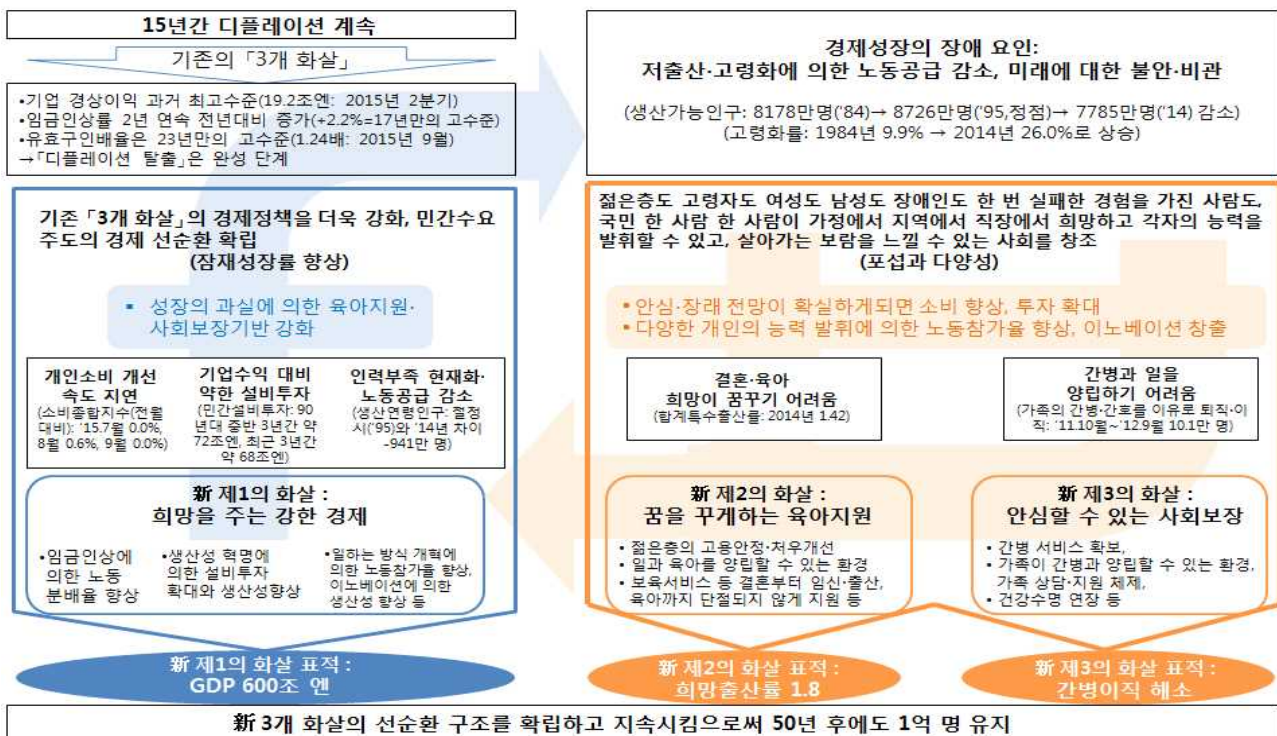
- 일본정부는 이 건의를 인정하는 대신 자격이 있는 보육사와 무자격 인력의 대우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조건을 제시
- 또한 외국인을 관광 안내하는 통역가이드도 국가자격증(통역안내사)이 있어야 유상가이드가 가능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방침

### ③ 1억 총활약 플랜

- 일본의 인구는 1970년경에 최초로 1억 명을 돌파, 그 후 '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총무성에 따르면 '50년경에는 1억 명을 밑돌 전망
- \* 일본 인구 추이 : ('70) 1억 467만 명, ('08) 1억 2809만 명, ('15) 1억 2710만 명, ('50) 9780만 명(예측)
-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1억 총활약 사회」란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이나 고령자 등 모두가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여, 일본정부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1억 총활약 플랜」을 책정
- 플랜의 핵심은 새로운 3개의 화살로 제1의 화살인 「희망을 꿈꾸는 강한 경제」, 제2의 화살은 「꿈을 창조하는 육아지원」, 제3의 화살은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으로, 소비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임

#### <1억 총활약 사회 개요>

1억 총활약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경제 활성화 정책 - 포섭과 다양성에 의한 지속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 -



- 일본의 ‘15년 출산율은 1.46으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25년 목표치인 희망출산율 1.8(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이 모두 출산했을 때의 출산율)에는 미흡
  -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내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시켜 ‘17년도까지 50만 명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육아 환경을 정비할 계획
- 50만 명의 보육 인수를 위해서는 약 9만 명의 보육사가 필요하지만 보육사의 평균 월급은 22만 엔으로 산업 전체 평균보다 약 11만 엔이나 낮은 것이 현실
  - 일본정부는 보육사의 급여를 2%(월액 평균 약 6000엔) 인상시켜 경력보육사는 수당 4만 엔을 지급할 예정
-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지만 들어 갈 수 없는 부모의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은 연간 약 10만 명
  - 일본정부는 간병보험의 재원을 활용하여 ‘17년도부터 간병직원의 임금을 월 평균 약 1만 엔 인상시킬 계획
  - 일본정부는 ‘20년 초반까지 간병시설을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간병 인력 25만 명 확보
-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조성금을 부여하는 등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의 증가를 추진
- 1억 총활약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며, 일본정부는 과거 3년간 아베노믹스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활용할 방침

#### < 1억 총활약 플랜 >

##### 공통과제인 일하는 방법의 개혁 방향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 비정규고용직의 대우 개선
2. 장시간 노동의 시정
3. 고령자의 취업 촉진

##### 「희망출산율 1.8」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육아·간병의 환경 정비
2. 모든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
3. 여성의 활약
4. 결혼 지원의 확충
5. 젊은층·육아세대의 지원
6. 육아를 위해 3세대 동거 환경 만들기

7.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어린이·젊은층의 활약 지원


##### 「간병 이직 제로」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간병 환경 정비
2. 건강수명의 연장과 간병 부담의 경감
3. 장애인, 난병환자, 암환자 등의 활약 지원
4. 지역공공사회의 실현

##### 「전후 최대인 명목GDP 600조 엔」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일본재흥전략2016(성장전략)과 동일

## □ 시사점

- 성장전략의 핵심인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고용 형태나 기업의 업종을 전환시킬 가능성
  -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전망하여, 우리기업들의 대응해 나갈 필요
  - 경산성에 따르면 '30년에 고용이 증가하는 분야로써 R&D나 경영전략 책정('15년 대비 +96만 명), 영업판매(+114만 명), 서비스업(+179만 명), IT업무(+45만 명) 등
- '17.4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증세(8→10%)의 실시가 '19.10월로 연장되어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한 상황
  - 과거 3년간 아베노믹스에서도 성장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2016년판도 계획대로 추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
  - 외국인 인재 유치나 해외전개 지원 등 우리나라의 對日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 

## &lt;참고자료&gt;

제27차 산업경쟁력회의(2016.5.19.),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부회 『「新産業構造ビジョン」 ～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中間整理』(2016.4.27), 닛케이신문(2016.5.17/18/19/20)